

발달지연 아동의 한방치료에 대한 소아재활치료사들의 인식조사

권지현¹ · 윤영주² · 오태영³ · 김부영⁴ · 이미주⁵ · 이승연¹ · 유선애¹

¹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아과, ²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동서협진의학,
³신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물리치료학과, ⁴한의학연구소, ⁵차의과학대학교 차분당의료센터 한방부인과

Abstract

A Survey on Rehabilitation Therapists' Understandings about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eatments for Developmentally Delayed Children

Kweon Ji Hyeon¹ · Yun Young Ju² · Oh Tae Young³ · Kim Bu Young⁴

Lee Mi Joo⁵ · Lee Seung Yeon¹ · Yu Sun Ae¹

¹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²Department of Integrative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Silla University,

⁴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⁵Department of Korean Gynecology,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know the rehabilitation therapists' awareness on the oriental medicine treatments for developmentally delayed children.

Methods

We distributed questionnaires to 370 rehabilitation therapists and collected 260 of them. We analyzed the data from the collected 260 questionnaires.

Results

1. 60% of the participants didn't know what the oriental medicine treatment pertains.
2. 28% of the participants were aware the benefits of the oriental medicine treatment, especially in improving physical fitness and general health.
3. 30% of the participants worried about the side effect of the oriental medicine treatment such as increasing liver somatic index, changing of body weight, muscle stiffness or pain.
4. 53% of the participants said they refer to western medicine primary care doctor when parents of young patients ask rehabilitation therapists about the oriental medicine treatment option for their children.
5. Many participants think that the oriental treatment option should be widely recognized and understood.

Conclusions

This study shows that the rehabilitation therapists' low awareness about the oriental medicine treatment option for developmentally delayed children.

Key words: Developmental delay, Oriental treatment, Investigation of awareness

Received: October 27, 2017 • Revised: November 11, 2017 • Accepted: November 16, 2017

Corresponding Author: Yu Sun Ae

Department of Pediatrics, Dongeui University Oriental Medicine Hospital, 62 Yangjeong-ro, Busanjin-gu, Busan, 614-851, Republic of Korea.

Tel: +82-51-850-8680 / Fax: +82-51-850-8744

E-mail: kumgye@deu.ac.kr

© The Association of Pediatrics of Korean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Introduction

미국 보건법에 의하면 발달장애는 정신적 질환, 신체적 손상 또는 두 개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만성적인 소아 성장 발달의 장애로 정의되며¹⁾, 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 자폐증, 신경학적 장애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질환이다²⁾.

최근 환경오염, 약물 남용 등이 증가하면서 혹은 의학 발달에 의해 조산아, 저체중아 및 뇌손상을 입은 영아들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발달장애 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³⁾.

발달지연이 확진되었을 시 조기 치료하여 발달지연을 정상화시키거나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라도 장애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4,5)}.

한의학에서 발달지연은 임상증상에 근거하여 서거나 걷는 것이 느리고 말을 늦게 하고 머리카락이 늦게 자라며 치아가 늦게 나는 것을 五遲라 하고, 頭項, 口, 手, 足, 肌肉 등이 痿軟無力한 경우를 五軟이라 하며, 頭項, 口, 手, 足, 肌肉이 強硬한 경우를 五硬이라 이르며, 小兒身體虛羸, 肝腎虧困, 心氣不足, 氣血不足을 원인으로 보고 치료하였다⁶⁾.

발달지연 중 뇌성마비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감각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복합적으로 수행해도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환자 보호자들은 재활치료 이외에도 각종 건강기능식품 복용, 동종요법, 승마치료, 뉴로피드백 치료 등 다양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질환에 속하지만⁷⁾, 한방치료 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양방병원 내원 아동의 7%가 한방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⁸⁾.

임상 현장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소아재활치료사의 권유에 의해 한방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이에 환자 보호자들의 한방치료에 대한 욕구에 소아재활치료사들의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발달지연 아동의 한방치료에 대해 치료 현장에 종사하는 소아재활치료사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II. Methods

1. 연구 대상

2016년 12월 03일 부터 2017년 02월 04일 까지 총 64일간 전국의 병원, 복지관, 어린이집 및 사설 센터에 근무하는 소아재활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동의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DIRB-201611-HR-R-032)을 받았으며 소아재활치료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개발은 파일럿 연구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후 전문가 검토와 수정을 통해 설문지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부록 1). 연구자가 설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직접 또는 전화로 설명하였으며, 배포 및 회수는 직접, 우편 그리고 구글 설문지로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모두 370부이며, 총 26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회수율 70.8%), 응답내용이 부실한 2부를 제외하고, 260부를 분석하였다.

3. 설문 항목

·일반적인 사항은 성별, 연령, 근무 지역, 근무 직종, 근무 기관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임상 경력 관련 사항은 소아재활치료 종사 기간, 하루 치료 소아환자 수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방치료 환아에 대한 경험 관련 사항으로 현재 치료하고 있는 환아 중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 수 및 진단명, 과거 치료했던 환아 중 한방치료를 받았던 환아 수 및 진단명, 환아의 한방치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으로 한방치료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한방치료 정보 습득 경로, 한방치료 효과에 대한 생각, 한방치료 부작용에 대해 들은 바, 한방치료 문의에 본인이 취하는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 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나 제안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4. 자료분석 방법

객관식 문항은 코딩을 거쳐 빈도수 및 백분율을 분석하였으며, 주관식 문항은 공통된 특성으로 묶어 범주화 하였다.

III. Result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 총 260명 중 '남자' 52명 (20%), '여자' 208명 (80%)이었으며, 나이는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총 259명 중 '26~30세' 91명 (35%), '21~25세' 73명 (28%), '31~35세' 49명 (19%), '36~40세' 26명 (10%), '41~45세' 13명 (5%)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근무 지역은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총 259명이 '서울' 46명 (18%), '부산' 105명 (41%), '대구' 43명 (17%), '울산' 30명 (12%), '인천' 14명 (5%), '경남' 11명 (4%) 의 분포를 보였으며, 직종은 총 260명 중 '물리치료사' 170명 (66%), '작업치료사' 62명 (24%), '언어치료사' 25명 (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근무 기관 형태는 총 260명 중 '재활전문병원' 95명 (37%), '종합병원/병원' 66명 (25%), '의원' 37명 (14%), '사설치료센터' 33명 (13%), '복지관/특수어린이집' 26명 (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TEM	N (%)	ITEM	N (%)
Sex	Male 52 (20%)	Seoul 46 (18%)	
	Female 208 (80%)	Busan 105 (41%)	
Age	21~25 73 (28%)	Ulsan 30 (12%)	Working area
	26~30 91 (35%)	Daegu 43 (17%)	
	31~35 49 (19%)	Gyeongnam 11 (4%)	
	36~40 26 (10%)	Gyeongbuk 0 (0%)	
	41~45 13 (5%)	Daejeon 1 (0%)	
	46~50 4 (2%)	Gyeonggi 9 (3%)	
	51~55 2 (1%)	Incheon 14 (5%)	
	56~60 1 (0%)		
	Physical therapist 170 (66%)		
	Occupation	Occupational therapist 62 (24%)	
Language therapist 25 (10%)			

2. 임상경력

소아재활치료 종사 기간은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총 259명 중 '2~5년' 77명 (30%), '6~10년' 56명 (22%), '1년 미만' 55명 (21%), '1~2년' 42명 (16%), '11년 이상' 29명 (11%)의 순으로 많았으며, 하루에 치료하는 소아 환자 수는 총 260명 중 '9~12명' 97명 (37%), '5~8명' 71명 (27%), '13명 이상' 51명 (20%), '1~4명' 41명 (16%) 순으로 많았다 (Table 2).

Table 2. Pediatric Rehabilitation Therapists' Clinical Career

ITEM	N (%)	ITEM	N (%)
Work period (year)	<1 55 (21%)	Number of pediatric patients treated per day	1~4 41 (16%)
	1~2 42 (16%)		5~8 71 (27%)
	2~5 77 (30%)		9~12 97 (37%)
	6~10 56 (22%)		≥13 51 (20%)
	≥11 29 (11%)		

3. 한방치료 (침, 약침, 한약 등) 환아에 대한 경험

현재 치료하고 있는 환아 중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 수는 총 260명 중 '0명' 183명 (70%), '1~4명' 68명 (26%), '5~8명' 7명 (3%), '9명 이상' 2명 (1%)의 순으로 많으며, 해당 환아의 진단명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뇌성마비' 90명, '기타 (자폐, 언어장애 등)' 46명, '염색체 질환 (근육병, 각종 증후군 등)' 29명의 순으로 많았다 (Table 3).

과거 치료했던 환아 중 한방치료를 받았던 환아 수는 총 260명 중 '0명' 164명, '1~6명' 80명, '7~12명' 12명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해당 환아의 진단명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뇌성마비' 270명, '기타 (자폐, 언어장애 등)' 72명, '염색체 질환 (근육병, 각종 증후군 등)' 44명의 순으로 많았다 (Table 3).

환아의 한방치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응답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총 258명 중 '치료과정 중에 우연히 알게 됨' 128명 (50%), '초기 평가시에 보호자에게 질문해서 확인함' 75명 (29%), '관심 없음' 55명 (21%)의 순으로 많았다 (Table 4).

4.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

1) 한방치료 내용에 대한 인식

'한방치료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총 259명 중 '전혀 알지 못한다' 154명 (60%), '대략적인 치료 내용을 알고 있다' 104명 (40%), '치료 내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1명 (0%), '치료 내용, 방법뿐 아니라 치료 대상, 치료 금기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다' 0명 (0%) 순으로 많았다 (Table 4).

2) 한방치료 정보 습득 경로

'한방치료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주로 습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총 259명 중 '평가 시에 보호자들을 통해서' 126명 (49%),

Table 3. Patients Receiving Oriental Medical Treatment

		ITEM	N (%)			ITEM	N (%)
Number of patients receiving oriental medical treatment		0	183 (70%)	Number of patients receiving oriental medical treatment		0	164 (63%)
		1~4	68 (26%)			1~6	80 (31%)
		5~8	7 (3%)			7~12	12 (5%)
		≥9	2 (1%)			13~18	0 (0%)
Patients currently receiving oriental medical treatment	Diagnosis of patients treated with oriental medicine (Multiple responses available)	Cerebral palsy	90 (54%)	Patients who have had past oriental medical treatment		19~24	3 (1%)
		Chromosomal abnormality (Muscular disease, various syndromes, etc.)	29 (18%)			25~30	1 (0%)
		Etc (Autism, language disorder etc.)	46 (28%)			Cerebral palsy	270 (70%)
						Chromosomal abnormality (Muscular disease, various syndromes, etc.)	44 (11%)
				Etc (Autism, language disorder etc.)	72 (19%)		

Table 4. The Recognition Degree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

ITEM	N	ITEM	N	ITEM	N		
How to check the patient's oriental medical treatment	Asked at initial assessment	75 (21%)	I do not know at all.	154 (60%)	Patient caregiver	126 (49%)	
	Accidentally discovered during the course of treatment	128 (50%)	The recognition degree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 contents	I know the treatment contents briefly.	104 (40%)	Therapist colleague	46 (18%)
	Not interested	55 (29%)		I know more about treatment contents and method.	1 (0%)	School curriculum	8 (3%)
				I know the details of therapeutic targets and taboos.	0 (0%)	Academy or seminar	1 (0%)
					Oriental medicine doctor	7 (3%)	
					Be not interested in	71 (27%)	

‘한방치료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전혀 없다’ 71명 (27%), ‘동료 치료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46명 (18%), ‘학교 교과과정에서’ 8명 (3%), ‘주변 한의사들을 통해서’ 7명 (3%), ‘학회나 세미나에서’ 1명 (0%) 순으로 많았다 (Table 4).

3) 한방치료 효과에 대한 생각

‘한방치료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총 259명 중 ‘잘 모르겠다’ 175명 (68%), ‘치료 효과가 있다’ 72명 (28%), ‘치료 효과가 없다’ 9명 (3%), ‘질환별로 다르다’ 3명 (1%) 순으로 많았으며 (Fig 1), 소아재활치료 종사 기간에 따라 2년 이하 총 97명 중 21명 (22%), 10년 이하 133명 중 34명 (26%), 11년 이상 총 29명 중 16명

(55%)이 ‘효과가 있다’에 응답하여 소아재활치료 종사 기간이 길수록 한방치료에 대한 신뢰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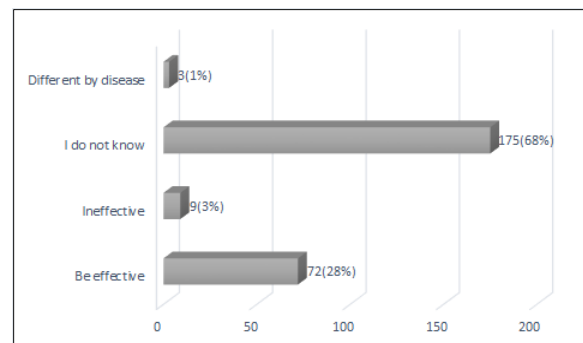


Fig. 1. Thinking about the effect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

Table 5. Difference of Thinking about the Effect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 Based on Work Period

	Be effective	Ineffective	I do not know	Different by disease	
Work period (year)	<2	21	4	71	1
	2~10	34	5	91	2
	≥11	16	0	13	0

‘효과가 있다’에 응답한 경우 세부 문항에서 효과 있는 부문에 대해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체력 향상이나 건강상태 호전 (수면, 식욕, 소화, 대소변 등)’ 70명, ‘인지기능 발달’ 10명, ‘운동기능 발달’ 7명 순으로 응답했고 (Fig 2), ‘질환별로 다르다’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 ‘정형외과적으로 일시적 효과가 있다’, ‘발달지연 아동에 효과가 있다’, ‘경직형 아동의 긴장도 저하에 도움이 된다’,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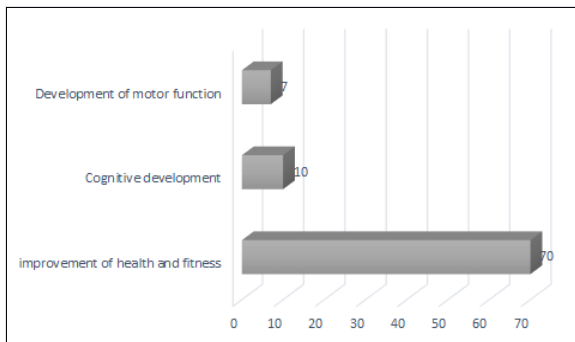


Fig. 2. Curative influence of the oriental medicine

4) 한방치료 부작용에 대한 인식

‘한방치료의 부작용을 보호자에게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총 260명 중 ‘들어본 적 없다’에 230명 (88%), ‘들어본 적 있다’에 30명 (12%)이 응답했으며 (Fig 3), ‘들어본 적 있다’에 응답한 경우 세부 문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문에 대해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한약 복용의 부작용’ 11명, ‘침/약침 치료의 부작용’ 10명, ‘기타 부작용’ 7명 순으로 응답했으며 (Fig 4),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 한약 부작용으로 ‘간수치 상승’ 2명, ‘체중 변화’ 2명, 그 외 ‘수면 부작용’, ‘컨디션 조절 안됨’, ‘열’, ‘설사’, ‘장기 치료 부담’ 등을, 침/약침 부작용으로 ‘경직 증가’ 2명, 그 외 ‘부종’, ‘통증’, ‘발적’, ‘열’, ‘수면 부작용’, ‘장기 치료 부담’ 등을, 기타 부작용으로 ‘강직’, ‘자극에 대한 두려움’, ‘염증’, ‘통증’, ‘부적절한 사혈’ 등을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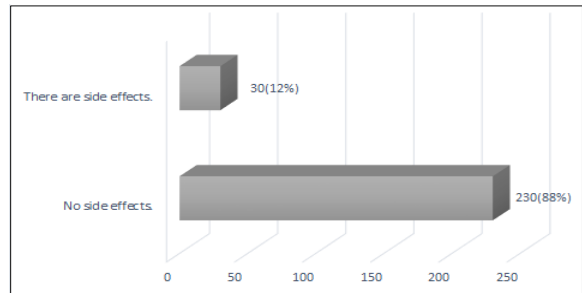


Fig. 3. Thinking about the side effect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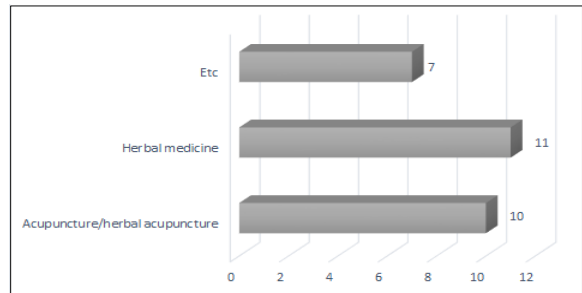


Fig. 4. Side effect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

5) 한방치료 문의에 본인이 취하는 태도

‘환아의 보호자가 한방치료를 받을지에 관해 문의할 경우 귀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총 260명 중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라고 말한다’ 138명 (53%), ‘한의사에게 문의하라고 말한다’ 86명 (33%), ‘질환별로 다르다’ 23명 (9%), ‘보호자에게 먼저 한방치료를 받아 보도록 권유하는 편이다’ 10명 (4%), ‘가급적 한방치료를 받지 말도록 권유한다’ 3명 (1%) 순으로 많았으며 (Fig 5), ‘질환별로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 주관식 문항에 ‘체력, 식욕, 수면 등 건강상태와 관련된 진료에서는 한방치료를 권유하겠다’ 7명, ‘건강상태 호전에는 권유하나 인지, 운동기능 향상에는 권유하지 않겠다’ 2명, ‘통증 완화를 위해 권유하겠다’ 1명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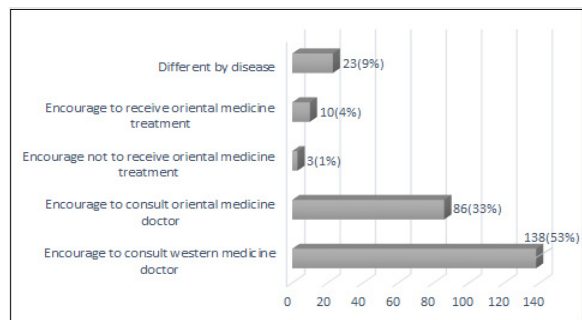


Fig. 5. Therapists' position when patients' wish to receive oriental medical treatment

6) 한방치료에 관한 질문과 의견

‘한방치료를 시행하는 한의사들에게 질문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라는 문항에 총 260명 중 50명이 응답하였으며, ‘한방치료에 대해 원리, 근거, 효과 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24명, ‘홍보를 통해 한방치료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9명, ‘치료 접근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진단 기준 및 치료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유사해야 한다’ 3명, ‘양방, 한방 치료에 대해 서로 공유 및 교류가 필요하다’ 3명, ‘실제 한방치료 사례를 알고 싶다’ 2명, 그 외 ‘관련 논문이 많이 발행되었으면 좋겠다’, ‘한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아동의 정서를 고려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한양방 동시 치료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다’, ‘침 치료시 위생에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 설문 자체의 타당도가 의심스럽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IV. Discussion

본 연구는 부산, 경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의 병원, 복지관, 어린이집 및 사설 센터에 근무하는 소아재활치료를 대상으로 총 26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발달지연 아동의 한방치료에 대한 재활치료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여성이 208명으로 80%, 21~35세 213명으로 82%, 근무 지역은 부산, 서울, 대구, 울산에 총 224명으로 88%의 분포를 보였다.

직종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총 232명으로 90%의 분포를 보였으며, 근무 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재활전문병원, 의원에 총 198명이 종사하여 76%의 분포를 보인데 반해 한방병원/한의원 종사자는 2명 (1%)으로 조사되어 한방 관련 근무자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하루에 치료하는 소아 환자 수가 ‘9~12명’ 97명 (37%), ‘5~8명’ 71명 (27%), ‘13명 이상’ 51명 (20%), ‘1~4명’ 41명 (16%)의 분포를 보인데 반해 현재 치료하고 있는 환자 중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0명’ 183명 (70%), ‘1~4명’ 68명 (2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소아재활치료 종사 기간은 ‘2~5년’ 77명 (30%), ‘6~10년’ 56명 (22%), ‘1년 미만’ 55명 (21%), ‘1~2년’ 42명 (16%), ‘11년 이상’ 29명 (11%)의 분포를 보이며,

과거 치료했던 환자 중 한방치료를 받았던 환자 수는 ‘0명’ 164명, ‘1~6명’ 80명, ‘7~12명’ 12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한방치료를 받은 환이를 접한 경험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한방치료를 받은 환자의 진단명은 뇌성마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아의 한방치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치료과정 중에 우연히 알게 됨’ 128명 (50%), ‘초기 평가시에 보호자에게 질문해서 확인함’ 75명 (29%), ‘관심 없음’ 55명 (21%)의 분포를 보여, 재활치료 시 한방치료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확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방치료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154명 (60%), ‘대략적인 치료 내용을 알고 있다’ 104명 (40%)의 분포를 보여 한방치료 내용에 대한 인식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정보 습득 경로는 ‘평가 시에 보호자들을 통해서’ 126명 (49%), ‘한방치료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전혀 없다’ 71명 (27%), ‘동료 치료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46명 (18%)의 분포를 보여 한방치료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한방치료 효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 175명 (68%), ‘치료 효과가 있다’ 72명 (28%), ‘치료 효과가 없다’ 9명 (3%), ‘질환별로 다르다’ 3명 (1%)의 분포를 보여 한방치료에 대한 신뢰가 높지는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소아재활치료 종사 기간에 따라 2년 이하 21명 (22%), 10년 이하 34명 (26%), 11년 이상 16명 (55%)이 ‘효과가 있다’에 응답하여 소아재활치료 종사 기간이 길수록 한방치료에 대한 신뢰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효과가 있다’에 응답한 경우 세부 문항에서 효과 있는 부문에 대해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체력 향상이나 건강상태 호전 (수면, 식욕, 소화, 대소변 등)’ 70명, ‘인지기능 발달’ 10명, ‘운동기능 발달’ 7명의 분포를 보여 체력 향상이나 건강상태의 호전에 한방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방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뇌성마비 환자의 인지발달, 언어발달, 변비·감기·비염·식욕부진·소화불량 등의 동반 증상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연구⁷⁾, 한방치료를 받은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뇌성마비 환아들의 체력향상, 인지향상 등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연구와 유사하다⁸⁾.

한방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에 230명 (88%), ‘들어본 적 있다’에 30명 (12%)의 분포를 보였으며, ‘들어본 적 있다’에 응답한 경우 세부 문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문에 대해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한약 복용의 부작용' 11명, '침/약침 치료의 부작용' 10명, '기타 부작용' 7명의 분포를 보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 '간수치 상승', '체중 변화', '정직 증가', '통증', '열', '장기간 치료 부담' 등을 답했다. 한방치료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문에 대한 내용은 부작용인지, 치료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인지, 다른 치료들과 병행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지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한방치료 전문가들의 정확한 설명과 소아재활치료사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치료시 한방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아의 보호자가 한방치료를 받을지에 관해 문의할 경우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라고 말한다' 138명 (53%), '한의사에게 문의하라고 말한다' 86명 (33%), '질환별로 다르다' 23명 (9%), '보호자에게 먼저 한방치료를 받아 보도록 권유하는 편이다' 10명 (4%), '가급적 한방치료를 받지 말도록 권유한다' 3명 (1%)으로 한의사보다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라는 응답이 더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질환별로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주로 체력, 식욕, 수면 등 건강상태와 관련된 진료에서는 한방치료를 권유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응답자의 다수가 양방병원에서 근무하여 한의학적 치료에 접근할 기회가 적으므로 한방치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양방 의사에게 문의하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한방치료를 받아보도록 권유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방치료를 시행하는 한의사들에게 질문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에 '한방치료에 대해 원리, 근거, 효과 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24명, '홍보를 통해 한방치료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9명, '치료 접근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진단 기준 및 치료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유사해야 한다' 3명, '양방, 한방 치료에 대해서도 공유 및 교류가 필요하다' 3명, '실제 한방치료 사례를 알고 싶다' 2명 등의 응답을 보여 한방치료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나 원리, 사례를 바탕으로 한 효과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 연구는 발달지연 아동을 치료하는 소아재활치료사들의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기입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 소아재활치료사의 88%가 한방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들은 바는 없으나, 한방치료 효과 역시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68%였으며, 환자의 보호자가

한방치료를 받을지에 관해 문의할 경우 53%가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라고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인들이 아닌 치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조차 한방 소아과,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가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상호 대등하게 공존하는 의료체계를 갖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양방중심의 의료 문화를 갖고 있다는 의견⁹⁾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한방치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실제 본 연구 대상 소아재활치료사의 60%가 한방치료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40%도 한방치료 전문가가 아닌 보호자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방치료에 대해 정확한 원리와 근거, 효과 입증을 요구하고 있고, 치료 접근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진단 기준 및 치료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유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많은 수가 부산, 경상지역 근무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소아재활치료사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기입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응답편의(response bias)가 개재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최근 발달지연에 대한 한방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중국 임상연구들을 문헌 고찰한 연구들¹⁰⁻¹²⁾나 증례연구들¹³⁻¹⁷⁾이 국내에서 발표되었지만, 이를 기초로 발달지연 환아의 체력향상 및 인지발달에 효과 있는 한방치료의 원리와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와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있다.

V. Conclusion

발달지연 아동의 한방치료에 대한 재활치료사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소아재활치료사를 대상으로 총 260부의 설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응답자 260명 중 한방치료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154명 (60%), '대략적인 치료 내용을 알고 있다' 104명 (40%)의 분포를 보여 한방치료 내용에 대한 인식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2. 한방치료 내용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환자 평

- 가시에 보호자들을 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126명, 49%).
- 한방치료 효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75명, 68%), 효과가 있다면 '체력 향상이나 건강상태 호전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보였다 (복수응답 가능, 70명).
 - 한방치료를 부작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에 230명 (88%), '들어본 적 있다'에 30명 (12%)이 응답하였으며, 주요 부작용으로 '간수치 상승', '체중 변화', '경직 증가', '통증' 등을 언급했다.
 - 환아의 보호자가 한방치료를 받을지에 관해 문의할 경우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라고 말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138명, 53%).
 - 한방치료를 시행하는 한의사들에게 질문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에 '한방치료를 대해 원리, 근거, 효과 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24명, '홍보를 통해 한방치료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9명, '치료 접근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진단 기준 및 치료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유사해야 한다' 3명, '양방, 한방 치료에 대해 서로 공유 및 교류가 필요하다' 3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의 재정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H14C0704).

References

- Caldwell BM, Wright CM, Honig AS, Tannenbaum J. Infant day care and attachment. *Am J Orthopsychiatry*. 1970;40(3):397-412.
- Lee SH. A review on the concept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pecial education. *J Korean Dev Disabil*. 2001;5(2):17-9.
- Yun CY. Understand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oul: Hyeongseong publisher. 2005:3-4, 19-20, 49, 58-68.
- Hong CU. Pediatrics. Seoul: Daehan textbook. 2004:31-45.
- Kim YG. Pediatric clinics of oriental medicine. Seoul: Dongkwangmunhwasa. 2002:40-50, 646-61.
- Kim GB, Kim DG, Kim YH, Kim JH, Min SY, Park EJ, Baek JH, Yu SA, Lee SY, Lee JY, Lee HJ, Chang GT, Chae JW, Hanm YJ, Han JG. Textbook of pediatrics of oriental medicine. Seoul: Uiseongdang Publishing Co. 2010:530-6.
- Son CH, Yun YJ, Yu SA. The experts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on the Korean medicine treatments for the cerebral palsy children. *J Korean Orient Pediatr*. 2016; 30(4):66-76.
- Park BW, Park YH, Yu SA, Hur YJ, Kim SC, Yun YJ. Study on the current utilization and the reason of ceasing Korean medicine treatment among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J Prev Med Public Health*. 2016; 20(1):89-97.
- Park YJ, Seul JL, Yoon JY, Sung MM. A survey on parent's recognition and utilization patterns of oriental medical care of preschool students in Seong-Dong district. *J Korean Orient Pediatr*. 2011;25(1):90-110.
- Moon SH, Kim JY, Kim LH, Jang IS. A review of recent acupuncture therapy for developmental disorder. *Korea J Acupunct*. 2003;20(3):129-46.
- Kim LH, Yu G. Review of clinical researches about Korean medicine treatment on language disorder of cerebral palsy. *J Korean Orient Pediatr*. 2012;26(4):32-7.
- Yu SA, Cho SW, Lee SY. A literature study on acupuncture for spastic cerebral palsy. *J Korean Orient Pediatr*. 2015;29(4):108-18.
- Jung HS, Lee JY, Kim DG. A clinical study of cerebral palsy. *J Korean Orient Pediatr*. 1999;13(1):181-9.
- Lee YG, Chae JW. A patient with lower limbs' delayed motor development was demonstrated Hang-ji: a case report. *J Korean Orient Pediatr*. 2007;21(3):215-21.
- Huh YJ, Jung WK, Han DY, Kim DR. An evaluation of significance of oriental medicine on treating speech impediment and limb impediment among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J Sasang Constitut Med*. 2005;17(1):120-9.
- Yu SA. Two cases of patients with developmental disorder treated by herbal medicine alone. *J Korean Orient Pediatr*. 2011;25(2):39-54.
- Yun YJ, Kim SC, Yu SA. Three cases of developmental delay due to cerebral palsy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J Korean Orient Pediatr*. 2017;31(1):82-91.

<부록 1>

<발달지연 아동의 한방치료에 대한 재활치료사의 인식 설문조사>

* 구글 설문지와 종이 설문지를 병행해서 조사하고 있으니, 둘 중 한 가지에 이미 응답하신 분은 중복응답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남 여
2. 출생년도는? (년)
3. 직장이 위치한 지역은? (광역시) 혹은 (도)
4. 귀하의 직종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기타()
5. 귀하의 근무기관은?

① 종합병원/병원	② 재활전문병원	③ 한방병원/한의원
④ 의원	⑤ 복지관/특수 어린이집	⑥ 사설치료센터
6. **소아 재활치료**에 종사한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③ 2년~5년	④ 6년~10년	⑤ 11년 이상
---------	---------	---------	----------	----------
7. 하루에 치료하는 **소아 환자의 수**는?

① 1~4명	② 5~8명	③ 9~12명	④ 13명 이상
--------	--------	---------	----------
8. 귀하가 **현재 치료하고 있는 환자 중에** 한방치료 (침, 약침, 한약 등)를 받고 있는 환아가 있습니까?

① 예 (예라고 대답한 분은 8-1, 8-2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② 아니오
---	-------

 - 8-1.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는 몇 명입니까? (명)
 - 8-2.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의 진단명은?

① 뇌성마비 (명)	② 염색체 질환 (근육병, 각종 증후군) (명)
③ 기타 발달장애 (자폐, 언어장애등) (명)	
9. 귀하가 **과거에 치료했던 환자 중에** 한방치료 (침, 약침, 한약 등)를 함께 받았던 환아가 있습니까?

① 예 (예라고 대답한 분은 9-1, 9-2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② 아니오
---	-------

 - 9-1. 한방치료를 받았던 환아는 몇 명입니까? (명)
 - 9-2. 한방치료를 받았던 환아의 진단명은?

① 뇌성마비 (명)	② 염색체 질환 (근육병, 각종 증후군) (명)
③ 기타 발달장애 (자폐, 언어장애등) (명)	
10. 귀하는 치료 환자의 **한방치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합니다?

① 초기 평가시에 보호자에게 질문해서 확인 함.
② 치료과정 중에 우연히 알게 됨.
③ 한방치료 여부에 관심 없음.

11. 귀하는 발달지연 환아들이 받는 **한방치료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알지 못한다.
- ② 대략적인 치료 내용을 알고 있다.
- ③ 치료 내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 ④ 치료 내용, 방법뿐 아니라 치료 대상, 치료 금기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다.

12. 귀하는 한방치료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주로 습득하십니까?

- ① 평가시에 보호자들을 통해서
- ② 동료 치료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 ③ 학교 교과과정에서
- ④ 학회나 세미나에서
- ⑤ 주변 한의사들을 통해서
- ⑥ 한방치료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전혀 없다.

13. 귀하와 동료 치료사들의 경험으로 볼 때 환아들이 받는 **한방치료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치료 효과가 있다. (→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체력 향상이나 건강상태 호전 (수면, 식욕, 소화, 대소변 등)에 효과가 있다.
 - 인지기능 발달에 효과가 있다.
 - 운동기능 발달에 효과가 있다.
- ② 치료 효과가 없다.
- ③ 잘 모르겠다.
- ④ 질환별로 다르다. (구체적 내용: _____)

14. 귀하가 치료한 환아 중에 **한방치료의 부작용**을 보호자에게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들어본 적 없다.
- ② 들어본 적 있다. (→ 들어본 적이 있는 부분에 체크하고, 구체적 내용을 써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침/약침 치료의 부작용 (구체적 내용: _____)
 - 한약 복용의 부작용 (구체적 내용: _____)
 - 기타 부작용 (구체적 내용: _____)

15. 환아의 보호자가 **한방치료를 받을지에 관해 문의**할 경우 귀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 ① 잘 모르겠으니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라고 말한다.
- ② 잘 모르겠으니 한의사에게 문의하라고 말한다.
- ③ 가급적 한방치료를 받지 말도록 권유한다.
- ④ 보호자에게 먼저 한방치료를 받아 보도록 권유하는 편이다.
- ⑤ 질환별로 다르다. (구체적 내용: _____)

16. **한방치료를 시행하는 한의사들에게** 질문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_____)